

데스크시각



최재호 편집부국장·경제부장

지국에서 돌아온 태극 전사(세계 57위)들이 지난 27일 열린 월드컵 예선 3차전에서 전자 군단(세계 1위)을 2대 0으로 침몰시켰다. 비록 16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탈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월드컵 원정길(1·2차전)을 생각하면 기적처럼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다.

동력 잃어가는 향토 기업

'1% 희망'이라는 비아냥거림 속에서 치른 세계 1위 독일과의 경기에서 우리 한국 팀은 세계 축구사에 한 획을 그었다.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 '원팀'은 그동안 비판과 힐난 일색이던 여론을 단 하루 만에 침소로 바꿔 놓았다. 특히 그동안 여론의 못맛을 맛은 신대용 감독을 비롯해 수비수 장현수와 김영권 선수 등은 기적 같은 반전으로 지국에서 탈출, 당당하게 귀국했다. 부족한 실력과 부정적인 여론을 이겨낸 이들의 정신력과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

축구 대표 팀의 기적 같은 반전을 보면서 지난 24일 새벽 멕시코와의 2차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경기장은 만

내가 마시는 한잔의 소주와 지역 경제

석에 가까웠다. 대부분 멕시코 응원단으로 그 숫자만 3만 명이 넘었다. 이들은 한국 팀이 공을 잡을 때마다 '우~'하는 야유를 보냈고 그 소리는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또 멕시코 팀이 공격을 시작하면 관중들은 발을 구르며 '야 야 아이야'로 귀에 익은 멕시코 대표 팀의 공식응원가인 '시에트로 린도'를 불러 냈다. 이들은 러시아에 사는 멕시코 교포가 아니었다. 대부분 월드컵을 보기 위해 멕시코에서 건너온 팬들이었다. 지구 반대편인 러시아 로스토프까지 찾아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것이다. 그들의 뜨거운 팬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멕시코 관중들의 열렬한 팬심은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 상황과 지역민들의 '애항심'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광주·전남 기업으로 50년 이상 된 보해양다. 대부분 월드컵을 보기 위해 멕시코에서 건너온 팬들이었다. 지구 반대편인 러시아 로스토프까지 찾아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것이다. 그들의 뜨거운 팬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멕시코 관중들의 열렬한 팬심은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 상황과 지역민들의 '애항심'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광주·전남 기업으로 50년 이상 된 보해양다. 대부분 월드컵을 보기 위해 멕시코에서 건너온 팬들이었다. 지구 반대편인 러시아 로스토프까지 찾아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것이다. 그들의 뜨거운 팬심을 엿볼 수 있었다.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에 근무하는 3900여 명이 모두 지역민들이다. 하지만 예전 금호타이어가 잘나갈 때도 지역 시장점유율은 40%대에 머물렀을 뿐이다.

축구 팬처럼 뜨거운 애정

보해양조는 심각한 수준이다. 예전 보해양조는 광주·전남에서 80~90%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현재 30~40% 유지도 힘들다고 한다. 경남의 지역 소주는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경쟁업체가 도저히 발을 못 붙이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니 부러울 뿐이다. '소주 한잔 하는데 무슨 애항심까지?'라는 물음에 대해 역설적으로 소주 한잔으로도 애항심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해 주고 싶다. 문제는 이들 기업 제품이 경쟁사에 비해서 품질과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보해 일새주의 경우 라벨을 떼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보면 경쟁업체 소주와 대부분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글로벌 시대에 '애항심'에 의존하는 기업 행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맞다. 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없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지역에 대한 사회 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관심 부족으로 인해 50년 이상 된 지역 기업들이 동력을 잃어 간다면 광주·전남 사도

민들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닐까. 광주는행이 서울·경기 지역에 31개 점포를 성공적으로 정착육시킨 데는 700만 호남 향우회의 힘이 컸다. 그렇이라고 금리가 더 싸고, 더 가깝고, 조건이 더 좋은 시중 은행을 모르고 있었는가. 고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약간의 손해에도 발품을 팔면서 '광주'라는 가슴 뭉클한 의미와 의리로 광주는행을 찾아 준 것이다. 이처럼 지역명을 넣은 제품들이 해당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제품들도 많다. 제주 삼다수와 평창수는 제주와 평창에서 각각 전국 평균보다 매출이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탄산수도 전체 매출은 8위지만 청주에서는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속초 홍계라면, 강릉 교동반점 짬뽕 등도 전국 판매는 저조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 관중들의 열렬한 팬심에는 못 미칠지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지 정도는 지역민이라면 최소한 알아야 할지 않을까. 부산처럼 지역 소주(무학·대신) 점유율이 90%대에 육박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마시는 한잔의 소주가 지역의 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l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행순 전남대 명예교수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는 2005년 2월 미국에서 세 젊은이들(Chad Hurley, Steve Chen, Jawed Karim)이 의기투합하여 만들었고 이듬해 11월 구글이 16억 5천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사들였다.

딱히 설명 필요 없이 유튜브는 유(You)와 튜브(Tube)의 합성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외래어다. 교육과 학습, 광고, 흥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음악, 예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 모든 형태의 비디오를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개인이든 기관이든 '너(You)'가 직접 사이트에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흑백 TV에 이어 컬러 TV에 쓰인 브라운관(Braun tube)의 '튜브'라는 단어를 자체가 TV 또는 비디오의 대명사로 쓰인다. 브라운관으로 이름을 남긴 독일의 물리학자 칼 브라운(Karl F. Braun)은 1909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기고



조귀업 전 초등학교 교사

길거리에서 허리가 굽은 채 지팡이를 짚고 불편하게 걷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 돌이켜보면 지금부터 45년 전 일이다. 시골에서 초·중등 부부 교사로 근무할 때다. 우리 장남을 키울 여건이 안돼서 갓난이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광주에 사시는 시부모님께서 지극 정성으로 키워주셨다. 금쪽 같은 손자를 아플세라, 다칠세라 단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잘 돌보셔서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 광주에 올라가면 식사 준비도 성심성의껏 해 주셨다. 음식 솜씨도 일품이셔서, 맛깔스럽고 영양 만점인 음식들이 입속에서 살살 녹았다. 맛있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늘 고맙고 송구스러웠다. 다

유튜브(YouTube)

유튜브의 확산은 절묘하게 스마트폰의 출현과 맞물린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한 달 후인 2006년 12월 LG가 세계 최초로 터치 스크린의 스마트폰(Prada Phone, LG KE850)을 발표했고 출시 18개월 만에 백만 대가 팔려 나갔다. 아무 때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는 현재 88개국 76개 언어로 운용되며 알렉사 인터넷(Alexa Internet)사의 통신량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 인기 있는 웹사이트이다

'강남스타일'이 2012년 12월 21일 조회 수가 10억을 돌파하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면서 싸이는 세계적 스타로 급부상하였다. 내팔에서도 TV, 신문, 라디오 등의 매체 뿐 아니라 개인들의 파티와 길 가는 청소년들에게서 '강남스타일'의 노래가 춤을 수없이 듣고 보였다. 내팔 청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사치품이면서 필수품으로 대중화 되었다. 200%의 세금을 부과하는 엄청난가게 비싼 자가용, 또는 오토바이는 못 가져도 좀 무리하면 살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세계와 소통한다.

이렇듯 인기 있는 유튜브에는 다양한 역기능과 수기능이 있다.

첫 번째 역기능은 유튜브의 본질상 여

과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네팔 지인의 고1 아들이 제작하여 올린 몇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필자가 컴퓨터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등장시켜서 친구를 구타하는 장면, 청소년들의 뒤통수에 감지 손가락을 총처럼 겨누어서 소지품과 돈을 훔치는 장면들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고 내 학생들은 자신들이 출연한 작품이라고 자랑 스투(?) 보여주었다.

특히 정치적 내용을 담은 동영상은 과장과 선동, 확인되지 않은 내용, 거짓 정보를 올려도 검증 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내용에 맞지 않는 제목을 달고 조회수를 늘리는 경우도 많다.

협박과 응징의 목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나체 사진들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익명을 이용한 악성 댓글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그러나 수기능도 많다. 사건이나 사고 현장의 초기 목격자들이 전하는 영상들은 전문 매체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다양하다.

혼자 가슴 속에 담고 있거나 너무 울화가 타들어가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서 '입금된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심정으

어머님의 며느리여서 자랑스럽습니다

시 시골로 내려갈 땐 좋은 재료와 양념으로 김치, 마른 반찬, 장조림, 찜개 등 한 동안 반찬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음식을 챙겨주셨다. 아직도 어머님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많이 생각나고 그리다.

둘째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 광주로 이사해 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았다. 어머님의 음식 솜씨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전수된 것 같다. 초보이 되면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 큰 외손자가 좋아하는 김 부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4년 동안 만들었다. 또 설 쇠고 서울 사는 셋째 아들 주려고 장 담고 매주를 갈라서 간장과 된장을 서울로 부친다. 가을에도 셋째 아들 주려고 고추장을 담근데, 큰 주격으로 재료를 섞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어머님의 주부 실습 덕분에 이런 살림 고수가 되지 않았을까? 시행착오를 거쳐 정성어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진정한 주부의 손맛이 나는 게 아닐까 싶다.

우리 자식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어머니의 허리 통증이었다. 허리가 아프심

에도 불구하고 장남 손자를 키워달라고 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었다.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할 때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한의원가서 침도 놔드리고 한약이랑 보약도 지어드렸지만 잘 듣지 않았었다. 여기저기 팔방으로 허리에 좋은 단방약을 알아보기도 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에 살고 있는 큰딸 집에서 2년간 사셨다. "시골은 공기도 맑고 할머니들도 많고 큰 딸이랑 살면 오죽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자식들을 몰라보시니까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안타까웠다. 차마는 참 고약한 병이다. 차마가 심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때다. 정성적인 언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병원 입원실에 오가는 간

호 올리라는 글은 일종의 치유 수단이다. 개인이나 지인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또는 황당한 상황을 유튜브에 올릴 때 댓글들이 제시하는 객관적 시각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부분간의 첨예한 대립 국면에서는 댓글 참여자들이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상황을 주도한다.

타인의 삶을 통한 간접 경험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조언은 무료로 제공되는 학습 효과를 가져오고 자연스럽게 참여자들의 표현력과 글쓰기 등 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따라오는 덩어리다.

남녀 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용하는 소위 '김치녀'나 시댁의 갑질을 고발하는 며느리들의 하소연, 학창 시절 일진들의 횡포 등등... 답답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울로 변별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통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브라운관 TV는 2000년대 들어 액정 TV의 출현으로 생산량이 줄다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이제 브라운 튜브는 유튜브로 거듭나서 가치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호사들을 보시곤 "절에 왠 처자들이 저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나?" 장남이 와도 못 알아보시고 "우리 큰오빠 왔네." 하신다. 원래 성품이 유순하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어서 항상 웃으시니까 간호사들이 "이영민 할머니는 귀여우시다."고 놀리곤 했다.

어머님이 젊으셨을 땐 짝줄이 어린 육남매를 키우시면서 집안 살림이 궁핍하여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쌀 한 톨이라도 자식들 입에 넣으려고 물로 배를 채우시면서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아오셨다고 한다. 이런 자식들이 살 만해서 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가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좋아하신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는데 곁에 계시지 않으니 생각할수록 아쉽다.

해마다 음력 11월은 시부모님 기일이니 다가오는 모양이다. 자식들을 몰라보시니까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안타까웠다. 차마는 참 고약한 병이다. 차마가 심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때다. 정성적인 언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병원 입원실에 오가는 간

社說

일회용품 줄이기 공공기관부터 실천해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이를 줄이자는 캠페인이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회용품 안 쓰기 도전단'이 활동에 들어갔고 사용 업체들과 협약식이 곳곳에서 진행되는가 하면 대학생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세계 일회용품 봉투 안 쓰는 날'이었던 어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이 단체는 커피·패스트푸드 전문점과의 '일회용품 안 쓰기' 협약을 확대하고 현장 감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0대 청년부터 60대 주부까지 30명이 참여한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도 출범했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일회용품 컵과 비닐 봉투 사용하지 않기에 도전한다. 조선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시민 맛' 팀은 지난 5월부터 대학교 주변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지역 일회용품 사용량은 전국 평

균을 웃돈다. 지난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민들의 1주일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3.88개로 전국 평균 3.36개를 웃돌았다. 그릇·접시는 0.97개(전국 0.81개), 비닐 봉투는 3.25개(전국 2.90개)에 달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환경을 망치는 주범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량은 190억 장에 이르고,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5445t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업체들의 폐비닐 수거 거부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이따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을 쓸 수 없다. 환경단체들도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일회용품 없는 지방 정부'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 이상의 환경 악화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인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겠다.

실업난 속 구직자 울린 사업주 일벌백계

최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5%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질적 실업 상태의 인원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3.2%에 달했다는 점이다. 네 명 중 한 명꼴로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의 최고 실업률 25%에 육박한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이 절박한 청년 구직자 수백여 명이 속여 임금 등을 갈취한 30대 인력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인력업체 대표 이 모(33) 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서 모(여·28) 씨를 불구속 일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력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 47명의 임금 1억5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3개월 수습 후 사무관리직(인사 담

당), 월 급여 200만 원 이상' 등 허위 구인 광고를 게시해 구직자를 끌어 모았다고. 이 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3개월 수습 조건을 내걸고 무안 등 전국 각지로 보내 양파 작업, 택배 하청, 조선업 하청업체 등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

이씨는 특히 업체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이 씨에 대한 임금채불 진정·고소 사건이 30여 건에, 피해자가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국에서 모집됐으며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임금을 가로챈 이들의 악덕 행위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일벌백계로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無等鼓

해외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기내식을 맛보는 것이다. 보통 세 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코스에는 기내식이 나오는데 대형 항공사는 무료로 제공한다. 운영 방식은 대한항공처럼 기내식 업체를 두고 직접 생산 배급하는 곳과 아시아나처럼 별도 업체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나뉜다. 직영이든 외주든 상관없이 출발지에서 조리해 실는다는 점은 같다. 항공사마다 각각의 여러 기내식 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세계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지고기 요리와 홍콩식 커리 새우요리, 제스민 라이스와 중국식 간장 소스를 얹은 소고기 요리가 대표 메뉴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빔밥, 찜밥, 한식 정찬을 한국을 대표하는 메뉴로 내세우고 있다. 저가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은 '치맥 세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 음식이더라도 기내에서 먹을 경우 맛이 30% 정도 떨어진다고 한다. 기내의 낮은 기압과 건조한 공기 때문이다. 낮은 기압이 단맛과 짠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

기내식

해하는 탓에 기내식은 지상의 음식보다 더 달고 더 짜게 만든다. 도구에 따라서도 풍미가 달라진 내식에 담아내는 곳도 있다. 중동의 에미레이트항공은 이슬람 율법에 맞춘 할랄 재료로 요리한다. 율법에 금지된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은 사용하지 않고 소와 닭 등 허용된 고기도 '신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한 후 단칼에 정맥을 끊어 도살한 것만 올린다. 할랄 재료로 만들어 레몬과 올리브를 곁들인 정통 아랍식 전체 요리가 특징이다.

해하는 탓에 기내식은 지상의 음식보다 더 달고 더 짜게 만든다. 도구에 따라서도 풍미가 달라진 내식에 담아내는 곳도 있다. 중동의 에미레이트항공은 이슬람 율법에 맞춘 할랄 재료로 요리한다. 율법에 금지된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은 사용하지 않고 소와 닭 등 허용된 고기도 '신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한 후 단칼에 정맥을 끊어 도살한 것만 올린다. 할랄 재료로 만들어 레몬과 올리브를 곁들인 정통 아랍식 전체 요리가 특징이다. 홍콩에 기반을 둔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중국식 요리의 정석을 지닌 기내식을 제공한다. 중국식 겨자 소스를 곁들인 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220-0541
220-0632	220-0652	(FAX 222-0195)	220-0551
220-0663	220-0692	(FAX 222-0195)	220-0195)
220-0664	220-0693	(FAX 02-773-9331)	
220-0642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